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11월 4일(주일) 제1219호



지난 5월에 열린 '러브소나타 샷포로'에서 참가자들이 활짝 웃고 있다.

‘러브소나타 후쿠오카’ 열흘 앞으로!

오는 11월 13~14일 아크로스후쿠오카 심포니홀
교회세미나, 가스펠나이트, 리더십포럼, 러브소나타 집회

러브소나타 후쿠오카 집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후쿠오카 교계는 벌써부터 부흥 예감에 들떠있다. 러브소나타 서울본부는 막바지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브소나타 후쿠오카는 11월 13일과 14일 아크로스후쿠오카 심포니홀에서 막 오른다. 13일에는 하카타그리스도교회에서 교회세미나가 열린다. 박종길 목사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정진호 장로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천’, 이기복 교수 ‘가정사역과 자녀양육’을 주제로 강의한다. 같은 날 저녁 7시 30분에는 러브소나타 전야제 ‘가스펠나이트 후쿠오카’ 집회가 아크로스후쿠오카 심포니홀에서 진행된다. 안도 리에코 목사(타마가와세이가쿠인 학원장)가 ‘주를 사랑하라’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14일에는 리더십 포럼과 러브소나타 후쿠오카 집회가 이어진다. 메인집회 러브소나타는 아크로스후쿠오카 심포니홀에서 막 오른다. 이슬기(가야금 연주자), 송솔나무(플루트 연주자), 김영미(소프라노), 안토니오 코가(기타리스트) 등이 게스트로 출연하고, 이재훈 담임목사가 일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다.

러브소나타 후쿠오카 실행위원회는 17차례 실행위원회를 개최했다. 현재까지 84개 교회와 협력하기로 했고, 초대장도 2521장이나 발송했다. 협력교회 100개를 목표로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마츠우라 목사(후쿠오카조이호프채플)는 “러브소나타가 후쿠오카와 일본 교계에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러브소나타 서울본부는 지난 1일 참가자교육을 실시했다. 참가자 교육에서는 후쿠오카 교계 정보와 현지 교회 등을 안내했고, 집회에서 나눠 줄 선물 패키지와 중보기도 등을 했다.

후쿠오카는 일본 규슈의 항구도시이다. 외국 문물과 외교사절단이 들어오는 통로였다. 지금도 ‘아시아의 현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항공과 선박이 후쿠오카에 드나들고 있다.

후쿠오카에서는 지난 2007년 러브소나타가 열린 적 있다. 당시 78개 교회가 협력했고, 192명이 결신했다.

문의: 02-749-1149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2019 온누리교회 파트교역자 청빙

12일 서류마감, 17일 면접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차세대와 대학청년부에서 파트교역자를 청빙한다. 지원 자격은 1979년 1월 이후 출생자로 정규 대학 및 신학대학원 M.Div. 재학 및 졸업자 혹은 교육대학원(기독교교육 전공) 재학 및 졸업자로 목회의 소명과 인격을 겸비한 목회자다.

전형일정은 11월 12일 자정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지원 분야 설교 원고 1부(A4 3~4장, 글자크기 11), 대학졸업증명서, 신학대학원 및 기독교 교육 대학원 재학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또는 입학허가서), 신분증을 순서에 맞게 PDF파일로 변환한 다음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 발표는 11월 13일(화) 오후 6시, 2차 인사위원회 면접은 11월 17일(토) 오전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메일: onnurhr@gmail.com

문의: 02-3215-3233

/ 정현주 기자

남양주 온누리교회 창립 14주년

오늘(4일)은 남양주 온누리교회 창립 14주년 기념 주일이다.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남양주 2부 예배를 감사예배로 드린다. 감사예배에서는 장로합창단의 특송, 케이크 커팅식, 선교사들의 축하영상 등이 이어진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젊은 부부, 차세대, 이주민들을 섬기면서 지역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국내 네 번째 캠퍼스 교회다. 2004년 11월 7일 창립했다. 가족 같은 끈끈함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다. 차세대 양육과 이주민, 탈북민 등 외로운 이웃을 섬기는데 앞장서고 있다. 경기북동부 지역 넘어 강원도까지 선한영향력을 미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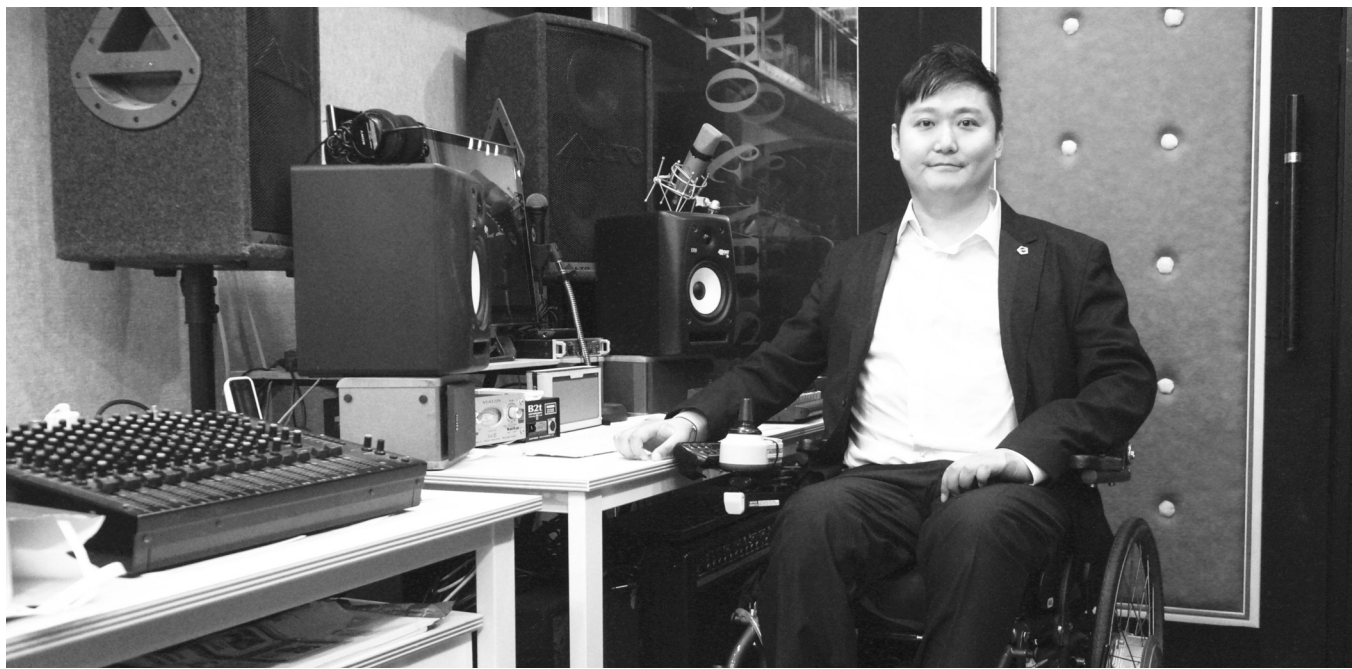
만나고 싶었습니다

삶이 기적 그 자체다. 눈물을 참을 수가 없다. 락그룹 ‘더 크로스’의 메인보컬 김혁건 형제(동대문중랑광동체)를 보면 모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는 특전사 출신이다. 누구보다 건강했던 그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한순간에 사지마비 중증장애인이 되었다. 어깨 밑으로는 전혀 감각을 느낄 수 없다. 처음에는 눈만 간신히 뜬 상태였는데 지금은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었고, 말도 하게 되었으며, 노래까지 하게 됐으니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

김혁건 형제가 기적을 바랐기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다. 고통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지금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천국의 구원을 만끽하며 다시 노래 부르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넌 할 수 있어! 넌 다시 일어날거야!”

희망, 하나님의 사랑, 기적을 노래하는 ‘김혁건 형제’



사지마비 장애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수 ‘김혁건’ 형제.

“남자들의 명곡이죠!”

김혁건 형제를 만난다는 말에 지인이 흥분하며 한 말이다. 김혁건 형제는 락그룹 ‘더 크로스’의 메인보컬이었다. 폭발적인 고음을 자랑하던 실력과 가수였다. 지금 30대 남성들이 학창시절 정말 부르고 싶어 했지만 감히 흉내도 못내던 바로 그 노래 ‘Don’t Cry’를 부른 주인공이다.

지난 10월 29일 MJ 스튜디오(성북구 아리랑로 4길 15)에서 김혁건 형제를 만났다. 고음을 자랑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었다.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끌어내기 위해 누군가 지속적으로 배를 누르고 때려줘야 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돕는 손길이 없으면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장애가 있었다. 어떤 질문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기자의 주저함이 느껴졌는지 김혁건 형제 스스로 너무나 담담하게 이야기를 들려줬다.

인기 가수 한순간에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다

사고 이후 재활훈련이 가장 힘들었다고 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 힘든 재활훈련보다 마음이 더 힘들었다고 했다. 사고 이후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과 좌절감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스스로는 목숨을 끊을 수조차 없던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했다. 그리고 참 위로와 평안, 천국을 선물해주셨다고 했다.

김혁건 형제는 2003년 가요계에 데뷔했다. 데뷔곡 ‘Don’t Cry’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특히 남성팬들이 많았다. 솔로 앨범도 발매했다.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보컬 레슨 강사로도 입소문이 났다. 그는 28살에 특전사에 입대했다. 힘들기로 소문난 특전사 훈련을 받을 정도로 신체 건강한 청년이었다.

제대하고 더 크로스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앨범을 준비했다. 무대에 다시 설 수 있다는 설렘이 가득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가 한순간에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 차와 충돌하고 공중을 몇 바퀴 돌아 도로 위로 쓰러지는 순간 죽음을 직감했을 정도로 큰 사고였다.

“아, 이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대로 정신을 잃으면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군대에서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정신을 놓지 말라는 훈련이 그때 적용된 건지도 몰라요(웃음).

병원에 도착해서도 정신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병원에 온 부모에게 의사가 말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수술실로 들어갔다. 긴 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사지마비 장애인이 되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 것도 움직일 수 없었다. 말도

못했다. 눈만 간신히 뜬 그야말로 통나무 같은 신체가 되어 버렸다. 그의 나이 32세였다.

고통스런 생활의 연속이었다. 1년 넘게 욕창 치료를 받았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재활훈련과 각종 치료를 거듭했다. 그런데도 몸 상태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재활훈련은 예전의 상태를 되찾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관절이 굳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합병증을 막기 위해 재활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으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병원들을 전전하면서 거액의 병원비를 쏟아가며 병원생활을 이어나갔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싸움이었어요.”

그 힘든 시간 그를 지탱해 준 건 가족들의 사랑과 신앙이었다. 그의 부모는 늘 그의 곁을 지켰다. 한순간에 장애인이 된 아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성심껏 보살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격려하고 힘을 줬다.

하나님 그리고 노래

미국 유학 가 있던 친구가 그의 사고 소식을 듣고 한국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교회에 갔다. 온누리교회였다.

“친구가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주일마다 교회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교회와 교인들을 알아갔고 그들을 통해서 조금씩 하

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순장님과 순원들이 나를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주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나를 위해 진심으로 울어주고 아파해줄 수 있는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인지 알고 싶고 만나고 싶었어요.”

김혁건 형제는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에 대해 알아갔고, 천국 소망과 구원을 확신하며 세례를 받았다.

“재활치료도, 정신과 치료도 저를 낮게 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며 제게 확신을 주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수치심,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임했다. 그토록 부르고 싶었던 노래도 다시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

“서울대학교 방영봉 교수(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안수집사)님이 제가 사지마비 장애인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복식호흡을 돕는 로봇을 만들어주셨어요. 교수님 덕분에 제가 다시 노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다. 지금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평안 속에서 살고 있다. 세상 노래가 아닌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있다. 2017년 KBS ‘불후의 명곡2’에서 가수 박기영과 함께 부른 ‘The Prayer’라는 노래가 그 신호탄이었다. 공중파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묵직하면서 아련한 고백을 했다.

새로운 목표도 생겼다.

“저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고, 위로가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신학을 체계적으로 배워야겠다고요. 그래서 신대원 진학을 준비 중입니다.”

김혁건 형제는 오늘도 희망과 하나님의 사랑, 기적을 노래하고 있다. 그의 노랫말처럼 수많은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선물하고 있다.

“넌 할 수 있어 힘들지만 언제나 이겨냈잖아 어두운 밤 지나 태양이 눈뜰 때 넌 다시 일어날거야”(김혁건 작사, 작곡 ‘넌 할 수 있어’).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항상 기도하라

에베소서 6:10~20

“항상 열려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구하십시오.
항상 기도하는 것이 승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지는 기도생활을 살펴보면 압니다. 기도가 잘 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가 막혀 있거나 우리 영혼 속에서 기도가 흘러나 오지 않다면 사탄이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영적 전쟁의 승패가 나타납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죄가 기도를 막습니다. 기도 대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탐욕 속에 살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기도를 방해합니다. 오해와 잘못된 태도로 기도하게 하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치르신 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회생도 기도를 효과 있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도를 효과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올바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귄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기도생활에서 나타납니다. 또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다섯 가지 메시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항상 기도하라, 둘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셋째 늘 깨어서 기도하라, 넷째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다섯째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입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에 대한 특별 강조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생명의 호흡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테살로니가전서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이라는 단어 앞에서 절망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말씀은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예배에 참석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불가능

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학업을 할 때도, 잠을 잘 때 항상 합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여러분, 호흡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 반대입니다.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호흡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모든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인듯,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는 힘이고, 능력이요, 영적 삶의 근거입니다. 호흡은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합니다. 자연스럽게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기도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탄은 자연스러운 호흡을 가로막습니다. 염려, 근심, 이 세상에 속한 욕심, 탐욕, 육신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염려와 근심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목을 조르다’, ‘호흡하지 못하도록 숨을 가로막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 영혼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만 호흡하는 분 있습니까? 아침에 한 번만 호흡하고 사는 분 있습니까? 호흡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항상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호흡은 먼저 들이마시고 내뿜습니다. 이 호흡의 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임하셨기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셨기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기도는 생명의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통해 산소를 몸 안으로 공급하면서 살아가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도록 습관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답답함을 느낍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

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영혼의 호흡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홀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서 단 몇 마디라도 호흡하게 되면 살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누군가 대표로 기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혼의 호흡을 생기게 해줍니다. 우리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을 때 인공호흡기를 끼워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계속 영적 호흡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적, 종교적 생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호흡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우리 영혼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만큼은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기쁘게 지켜야 합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호흡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없듯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매일, 매순간, 호흡하듯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바랍니다.

일상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일상이 되는 삶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에서 연결되어 발전됩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말씀은 일상생활과 단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일상, 모든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제목입니다. 일상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일상이 되는 삶이 바로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것은 두 가지 경우 중 한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진실하지 않고 거짓과 가식으로 꾸며졌을 가능성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기도란 기도 그 이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모든 필요와 문제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스토아 철학자들은 물질적 삶을 경시했습니다.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죄처럼 여겼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어거스틴도 이러한 가르침에서는 균형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리 있는 말이지만 반만 옳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은 경제적 필요를 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생활의 올바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

유명한 크리스천 문화가 C. S. 루이스의 영적 스승 조지 맥도날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정말 좋은 선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선물 안에 선물을 주는 이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하나님은 언제나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받는 사람이 선물 안의 주는 이를 알아보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은 그분의 가장 크고 온전히 만족스러운 유일한 선물인 그분 자신의 전조일 뿐입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주실 마음이 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인데도 우리가 구하기 전까지 주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들의 출처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알려고 하십시오. 모든 선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기도하지 않고도 주어진 선물이 진정한 선물이 되지 못하는 까닭은 출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1면에 계속〉

기획 교회에 꼭 돌아야 할 영혼들

1. 학교 밖 청소년

건강한 사회, 건강한 어른의 모델이 되자!

매년 청소년 5~6만 학교 떠나 ... ‘학교부적응’이 가장 큰 원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부터 바꾸고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매년 청소년 5~6만 명이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 밖으로 나가고 있다. 사회는 그들에게 ‘비행청소년’이라고 낙인을 찍고 있다. 예비범죄자 취급하기 일쑤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잊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우리의 미래라는 점이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나서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어른의 모델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학교 밖 청소년들과 자전거 중주, 성도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무궁무진하다.

수능이 채 보름도 남지 않았다. 60만 명에 달하는 수험생들의 미래가 달린 하나의 통과례를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모든 신경이 집중되고 있다. 수험생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또 있다. 28만에 달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거리를 헤매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에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은 약 28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집계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35만 명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다. 매년 약 청소년 5~6만 명이 학교 밖으로 나오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할수록 국가적인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35만 7천 명 정도인데 매년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이 5~6만 명이나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방치하면 누가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간단 말인가.

서울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많은 시민들이 “비행 청소년들의 술과 담배 값을 세금으로 준다”며 불만을 표했다. 서울시의 정책 타당성을 떠나서 이와 같은 정책이 논란이 될 걸 보면 수많은 어른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비행청소년이고 예비범죄자라는 인식은 단언컨대 틀렸다. 심각한 오해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2012~2016년)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 13만 명 중에서 징계를 받아 학교를 떠난 비율이 퇴학 3%, 제적·유예·면제 1%에 불과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자 미래의 꿈나무이다.

왜 학교를 떠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그런데 왜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학교 밖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에 대한 부적응이 가장 큰 원인이고, 학교 밖에서는 청소년 42%가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가 고등학교를 중퇴한 청소년 3만 명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이유를 조사했는데 학교부적응 51.6%(15,672명), 해외 출국 12.9%(3,923명), 가사 5.2%(1,572명), 질병 4.2%(1,272명), 비행 2.6%(788명), 제적, 유예 1.8%(556), 기타 21.7%(6,589명)순이었다. 부적

응이 학업을 그만두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조사했더니 학업형 42%, 무업형 23%, 직업형 17.9%, 비행형 8.9%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있거나 자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 42%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거나 대학입시, 복고를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장소는 복지센터, 스스로, 주변의 도움이 주를 이뤘다. 학교 밖 청소년 17.9%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야학을 통해 학업을 이어가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꽤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사회가 약간의 도움만 제공하면 그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온누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청소년쉼터의 도움을 받아 예수 믿고 잃었던 꿈을 되찾은 청소년들이 부지기수다. 대학에 진학하고, 간호조무사, 요리사, 정비사 등 자신의 진로를 찾아간 사례도 상당하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꿈이 없는 게 아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준다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났어도 우리는 그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대부분 가정에서 있다. 가정의 온전한 보살핌과 사랑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결국 테두리를 벗어나 방황하고 거리를 떠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청소년쉼터나 복지센터를 찾기도 하지만 그때뿐이다. 입맛에 맞는 청소년쉼터나 복지센터를 찾을 때까지 떠도는 경우도 있다. 가출 청소년끼리 무리지어 생활하는 ‘팸’에 가입하기도 한다. 팸은 가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일종의 공동체다. 원룸이나 모텔 등을 빌려 월세나 생활비를 나눠 내며 산다. 그러나 팸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회에 진입하게 돕는 일에 있어서 안정감을 주지는 못 한다.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토로하는

어려움을 조사했는데 지원 부족(18%), 낮은 자존감(13%), 불규칙한 생활태도(12.1%), 미래계획 없음(11.8%) 순이었다. 낮은 자존감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일단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급선무다. 따뜻한 관심과 사랑은 필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들에게 전해주기만 한다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털어내고 비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회와 크리스천들의 관심과 사랑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사회, 건강한 어른의 모델이 되어 줄 수 있다.

전국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과 자립을 돕는 꿈드림센터, 청소년쉼터들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미래를 설계하고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가장 손쉽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그곳에서 봉사하는 것이다.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꽃꽂이, 요리 등 문화체험을 통해 그들의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이 그 어떤 이유로 학교를 떠났어도 우리는 그들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화와 책

영화 ‘꿈의 제인’

영화 ‘꿈의 제인’은 학교 밖 청소년 ‘소현’이의 일상을 조명하면서 청소년들의 삶을 이야기한다.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어려운 소현이가 겪고 있는 현실과 바라는 이상적인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 영화에는 지독하리만큼 불쾌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삶이 그만큼 고달프다.

책 <세상을 품은 아이들>

위기를 극복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청소년 위기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명성진 목사가 만난 청소년들의 사례를 담았다.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내민 따뜻한 손길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지 알 수 있게 해 준다.

전문가 기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작은 기적을 위하여



김형근 소장
(군포하나로남자청소년센터
청소년센터)

필자는 2002년부터 군포하나로남자청소년센터(이하 하나로)에서 시작해서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가출청소년)들을 만나 오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 만나고 지지해

주며 섬기고 있는지를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누고 싶다.

필자가 처음 담당했던 업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이었다. 전일제 교육과정을 기획 및 운영하고, 때로는 검정고시 과목을 직접 가르치면서 청소년들을 만났다.

당시 하나로에서는 학업을 마치지 못한 주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다가 점점 늘어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반을 편성했다. 오전 검정고시 교과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며 전일제 과정을 운영했다. 넘치는 열정으로 어떻게 하면 시험유형에 맞춰 합격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출제유형과 빈도, 난이도를 분석했다. 검정고시 합격을 목표로 가르쳤다. 조금 더 많이 배운 내가 가르친다는 입장에서 접근했다. 위에서 아래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이었다.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아이들이었다. 그런데 청소년들과 함께 살면서 내가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나를 받아주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있었구나.”

청소년들을 섬긴다는 것은 같은 눈높이에서 눈을 맞추고 함께 하는 것이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말이다.

청소년들을 만나는 봉사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물론 단순 봉사나 특강 같은 형태도 가능하겠지만, 청소년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배움의 즐거움이나 직업세계를 탐색해 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하기 싫은 활동이나 공부도 봉사자나 선생님이 좋으면 따라 하기도 한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질문을 많이 하고 고민을 들으려 하면 청소년들은 부담을 느끼고 거짓말을 하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오랜 시간 함께 하다보면 청소년들은 마음을 연다.

청소년들을 더 넓은 세계로

청소년들과 관계형성을 했다면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할까? 청소년들을 더 넓은 세계로 이끌면 된다. 그 방법은 다양하다. 특강, 검정고시 공부나 될 수도 있고, 직업 체험이 될 수



하나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취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검정고시다.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검정고시 교과목을 가르치는 멘토들이 많이 필요하다. 매년 4월과 8월에 있는 검정고시 일정에 맞춰 검정고시반을 지도하거나 개별 학습멘토를 할 수 있다. 기초가 약한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집중지도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18세 청소년에게 중학교 1학년 수준부터 공부를 지도했던 경험도 있다.

교육과 함께 다양한 체험활동이 병행된다면 더할 나위 없다. 이를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공예나 목공, 벽화 작업, 힙합, 댄스 등을 통해 몸을 사용하는 활동이 청소년들에게는 꼭 필요하다.

하나로를 찾아 왔던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고민은 첫째가 검정고시, 두 번째는 진로였다. 하나로에서는 진로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희망 직업군 멘토를 연결하고, 인턴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봉사자의 일터에서 청소년들에게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기회가 된다면 진로 특강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직업에 대한 간접체험을 제공

할 진로멘토가 현장에서는 정말 많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을 기도와 후원으로 섬겨주는 것도 필요하다. 2002년 초에 만났던 10대 청소년들이 이제 30대가 되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뤄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다. 빈곤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어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 가운데 하나다.

청소년 수는 줄고 있다고 하지만 경험적으로 가정해제로 인해 폭력이나 방임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줄지 않았다. 그들을 자립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5년 5월 29일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가 202개소 설치되었다. 교육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자

체 조례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해야 할 청소년들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센터 평가가 양적인 지원서비스와 성과에 초점이 맞춰져서 청소년 한 명 한 명을 세워 나가고 질적인 성장을 돕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섬기고 싶다면 우선 지역의 시·군·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나 청소년센터를 우선 해 보기를 권한다.

인내와 사랑 그리고 변화

노숙을 하다가 의뢰 되어 왔던 김요셉(가명) 형제는 초등학교 졸업 이후 진학하지 않고 집안사정 때문에 이곳저곳을 전전했었다. 양말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다. 요셉 형제가 하나로에 의뢰되었을 당시에는 19살에 노숙을 하고 있었다. 1년 동안 봉사자들의 집중적인 지도로 그 다음해 4월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와 8월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대학에 진학했다. 현재는 광주 모 대학의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고 취업해서 생활하고 있다.

단기청소년센터에서 의뢰되었던 최다윗(가명) 형제는 부모님이 이혼하고 마음을 잡지 못하다 18세에 학교를 그만뒀다. 같이 살던 아버지와 불화로 19살 봄에 집을 나왔다. 하나로에서 학업을 이어갔고 외국어대학에 진학했다. 장학재단과 연계되어 4년 동안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금은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하나로에서 받은 사랑을 나누고 있다.

김민음(가명) 자매는 고등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 대인기피 증세를 보여 학교를 중퇴하고 집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가족에 이끌려 하나로에 왔다. 하나로에서 공예, 미술, 캠프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하나로에서 따뜻한 마음을 배우고, 친구들을 사귀면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열심히 살아볼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하고 하나로 직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지금은 상담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본인과 같은 청소년들을 돕는 현장으로 돌아올 날을 꿈꾸고 있다.

사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기 청소년 또는 비행청소년이라 부르며 경계 대상으로 보고 있다. 혹여나 자녀들이 물들까 두려워한다. 거친 아이들의 모습 이면에 있는 순수한 아이의 모습을 봐 줬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직접 만나 본 아이들의 센 척하는 모습 이면에 상상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 성도님들께서 인내를 가지고 사랑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작은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어선교학교’를 아시나요?

한국어 가르쳐 주고, 복음 전하고, 한국어 선교사 배출까지

외국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언어다. 그 나라의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소통하기 어렵고 그만큼 적응이 힘들어진다. 올해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민이 101만 명이나 되는데 대부분이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주민들이 한국어를 몰라서 겪는 설움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하나님은 이주민들의 아픔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다.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한국어 선교사 배출까지 하는 천사들을 보내셨다. 그 주인공은 한국어선교학교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한국에 온 이주민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고 있다.

지난달 20일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발생한 원룸 화재 사건으로 고려인 3세 부부가 14살 딸과 4살배기 막내아들을 잃었다. 사람들이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미처 대피하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을 너무나 황망하게 잃었다.

이 사례처럼 이주민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주민들의 기본권마저 흔들 수 있다.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절하게 적응하고, 스스로 생활을 이어나가려면 한국어 실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하다못해 비자를 받을 때도 한국어 실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어 교육은 이주민들의 생존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가장 효과적인 이주민 선교방법

온누리교회 한국어선교학교는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있다. 복음 전하는 일도 빼놓지 않는다. 또한 한국어선교학교에서는 한국어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있다. 관심만 있다면 누구든지 한국어 선교사가 될 수 있다.

“한국어는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차준근 팀장은 한국어 선교가 이주민 복음화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게 확신하게 된 계기가 있다.

“2013년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아웃리치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한국에서 이주민 노동자로 일하다 복음을 접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목사가 된 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은 교회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 선교는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복음까지 전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 아닐 수 없었다. 한국에서 복음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와 사역자로 헌신까지 한다니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이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이주민 선교방법이 틀림없다.

이미 많은 성도들이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이주민들을 섬기고 있다. 이상은 자매(김포공동체)는 2014년 8월부터 김포M센터에서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다.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학생들이 잘 따라

오지 못하더라고요. 많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이상은 자매는 이주민들에게 한글을 더 잘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온라인으로 한국어 교원양성과정을 수강했다. 그래도 쉽지 않았다. 문제가 무엇인지 계속 고민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어선교학교를 알게 됐다.

이상은 자매는 한국어선교학교에 입학해서 이주민들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교수법과 이주민 맞춤형교과책을 배우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었다. 이상은 자매가 한국어 교수법을 바꾸자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민들의 한국어 실력이 부쩍 향상됐다. 원활한 소통도 할 수 있었다. 그들과 더욱 친밀해지는 선물도 받았다.

“이주민들의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그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서로의 기도제목들을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어를 가르쳐줘야 한다

한국어가 선교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류문화 덕분이다.

이상은 자매는 2016년에 코이카 국제개발전문봉사단원으로 캄보디아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이미 한국어학교가 여러 개 개설되어 있었다.

“캄보디아에 일본어학교가 1개 있다면 한국어학교는 10개에서 15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EPS 근로제도’도 한국과 한국어 열풍을 만드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이주민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보고 E9비자를 취득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4년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급여도 5~10배 정도 많다. 오죽하면 이주민 중에서 한국의 E9비자를 받은 사람이 나오면 잔치를 열 정도다.

“제가 한국어능력시험 감독을 간 적이 있어요. E9비자를 받을 수 있는 이주민이 4천 명이었는데 7만 명이 넘게 응시했더라고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전문기관들은 너무 많다. 하지만 복음과 함께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기관은 드물다. 이주민들에게 복음과 함께 한국어를 가르치면 그 효과가 분명 다르다. 이상은 자매는 미군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그 사실을 적나라하게 목도했다.

“미군부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전에 과거 강사들이 어떤 한국어를 가르쳤는지 자료를 살펴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술 이름이나 나이트클럽 위치를 묻는 한국어를 가르쳐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줘야 한다. 한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한국어 선교사를 배출해야 한다. 한국어도 가르쳐 주고, 복음도 전하고, 한국어 선교사까지 배출하는 역할을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해야 한다.

한국어선교학교의 역할과 사명

한국어선교학교를 수료하고 스태프로 헌신한 성도들이 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류호명 성도다. 류호명 성도(44U공동체)는 낙망하던 중에 온누리교회를 알게 됐다. 그리고 한국어선교학교를 만났다. 그는 한국어선교학교를 통해서 이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한국어 선교가 이주민 복음화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깨달았다. 그래서 한국어선교학교를 수료하자마자 스태프로 자원했다.

김태용 집사(송과공동체)도 한국어선교학교를 수료하고 스태프로 헌신했다. 김 집사는 대학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어선교가 중국 복음화에 훌륭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중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가능하지만 포교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을 매우 경계합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중국 복음화 방법입니다. 복음 듣고 변화된 유학생들을 중국으로 역파송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문의: 010-3290-4506

생각해봅시다



이주호 팀장
(결혼예비학교 재정강사)

크리스천과 부동산

얼마 전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임대소득 혹은 매매차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속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대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뚝뚝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게 더 나은지에 대한 분석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나는 '두란노 결혼예비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세미나에서 예비부부와 결혼 10년차 이내 부부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수강생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안다. 바로 내 집 마련이다.

크리스천들은 부동산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 70%가 부동산에 몰려 있고, 적어도 내 집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는 정서가 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부동산열풍' 현상을 간과할 수만은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시대에 크리스천들은 부동산을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

부동산에 대한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남에게 보여주지 위해서 무리하게 대출 받아 비싼 아파트를 샀다가 대출금 갚느라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한결같이 아파트 시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다"고 말한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다보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허영심이 숨겨져 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차를 소유하려는 허영심이 하우스푸어와 카푸어(자신의 수입 대비 버거운 차량을 산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오래 전부터 집이 소유의 개념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집의 크기와 기능보다 가족들이 알콩달콩 살아가는 정서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때 '강남불패', '부동산불패'라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강남에 땅이나 건물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거기서 나오는 임대수익으로 몇 대가 편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러니 너도나도 부동산 투자에 달려붙을 만도 하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예전처럼 뚝뚝한 집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도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가 또 올까? 이 질문은 "향후 주가가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와 같다. 정답은 없다. 하지만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보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이미 부동산 시세가 하락세를 겪은 지 오래되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경제용어가 알려 주듯이 부동산 시세가 계속 떨어졌

다. 불과 몇 십 년 전에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 정도 하던 아파트 시세가 현재는 2천만 원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다.

우리나라도 현재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를 넘어설 정도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규제 방안과 함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집값이 서서히 떨어질 확률이 커진 상태이다.

향후 정부 정책과 다르게 대외경기의 변동 등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은 예전만큼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는 수단이

(DSR, 주택대출 원리금 외에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의해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뻔하기 때문이다.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크리스천들은 '과연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에 답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만 전 세계에서 유일 무이한 전세라는 제도가 있다.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하는 것보다 집의 규모를 줄여서 전세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전세금이 오를 것에 대한

리스크는 부자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

"어리석은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눅 12:16-20).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소유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며 꾸지람을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영원히 거할 처소가 예비 되어 있다

어떤 장로님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안식년을 맞이해서 한국에 돌아온 선교사들을 위한 쉼터로 제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또 과일 장사를 하면서 평생 모은 400억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대학에 기부한 노부부의 사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그 대학 학생들은 노부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면서 자신들도 나중에 재산을 모으게 되면 꼭 기부하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부동산을 포함해서 재산을 쌓는 것보다 내 것을 누군가와 나누고 베푸는 일이 더욱 값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시 84:10).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큰 집에서 살면서 담보대출 원금과 이자 내는 것을 버거워하면서 하루하루 걱정 속에서 사는 것보다 좁고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지만 주 안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에서 오순도순 살아가는 게 더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 우리에게 이 세상을 떠나 영원히 거할 처소가 예비 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큰 집에 살면서 담보대출 갚는 것을 버거워하면서

하루하루 걱정 속에서 사는 것보다

좁지만 마음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에서

오순도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

되지는 않을 듯싶다.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은 돈이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시킬 수 있는 유동성이 약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들(배우자, 자녀)이 상속세를 내지 못해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시세에 훨씬 못 미치게 급매해 버리는 사례가 속속 일어나고 있다.

과연 내 집 마련 꼭 해야 하는가?

최근 신혼부부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신혼희망타운에 시세 대비 70%선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또한 종잣돈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다. 왜냐하면 10월 30일부터 시행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부담과 몇 년에 한 번씩 이사를 다녀야 하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 그래도 전세로 살면서 종잣돈을 모아 추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전세금은 계약만료와 함께 돌려받는 금액이니 모은 종잣돈과 합쳐 내 집 마련에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목돈이 없는 이들은 임대아파트와 소형주택 등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조금 내는 형태(반전세)로 거주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소액의 월세와 관리비 정도로 소형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으니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추후 내 집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비기독교인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만큼 본인을 위해서만 소유한다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



지난 10월 7일 열린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에서 'Thanks' 음반을 판매하고 있다.

CMChamber, CGNTV에 기부

음반 판매금 3천만 원 및 CD 4천 장

CGNTV를 후원하는 프로젝트 체임버 오케스트라 'CMChamber(Christian Musician Chamber)'가 CGNTV에 기부를 한다. 첫 번째 프로젝트 음반 'Thanks' CD 판매금 3천만 원과 CD 4천 장을 기부한다.

CMChamber는 지난 10월 1일 첫 번째 프로젝트 연주 앨범 'Thanks'를 출시했고, 10월 7일 CGNTV 정기후원 약정행사에서 CD를 판매했는데 약 3천 장 가까이 팔렸다.

CMChamber는 CD 판매금 전액과 'Thanks' CD 4천 장을 CGNTV에 기부할 예정이다.

김창욱 장로(CMChamber 이사대표)는 "헌신해 준 크리스천 뮤지션들과 후원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CMChamber가 음악을 통한 문화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CMChamber(Christian Musica

n Chamber)는 'CGNTV체임버 오케스트라'로 활동을 시작했다. 지금은 CMChamber로 바뀌어 활동하고 있다. CMChamber는 후원 회원과 연주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직 후원과 재능기부로만 운영된다.

CMChamber가 만든 첫 번째 프로젝트 음반 'Thanks'에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평생에 가는 길' 등 주옥같은 찬송 16곡이 수록되어 있다. 두란노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02-577-9686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내일부터 수험생 위한 기도회

차세대사역본부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열 하루 앞두고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한다. 내일(5일)부터 수능능력시험 전날인 14일까지 평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누리홀과 양재 JDS홀에서 '수능매일기도회'가 시작된다. 수능시험일인 11월 15일에는 '수능종일기도회'가 진행된다. 수능종일기도회는 수능시험 일정과 동일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서빙고 02-3215-3523
양재 02-570-7553

서대문공동체 '1다락방 1사역'

서대문공동체가 지난달 28일 난지도 캠핑장에서 베다니마을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렸다. 이날 연합예배에는 몽골에서 온 이주민, 서대문공동체 성도 60여 명이 참석했다.

딜그리마 자매는 "서대문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너무 좋았다"고 했고, 통가 자매는 "서대문공동체 성도들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싶다"고 고백했다. 서대문공동체는 1다락방 1사역지로 베다니마을교회를 섬기고 있다.

고건 장로 소천

10월 28일 천국환송예배



고건 장로(여의도공동체)가 지난 10월 26일 급성백혈병으로 소천했다. 향년 70세.

고건 장로를 추모하는 천국환송예배를 지난 10월 28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영결식장에서 드렸다. 유가족, 목회자, 동료 장로, 공동체 지체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고건 장로의 천국 가는 길을 배웅하고 애도했다.

이날 천국환송예배는 최용준 목사의 인도, 이장로 장로의 기도, 장로합창단의 조가(弔歌), 박종길 목사 말씀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목사는 '길, 진리, 생명'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며 "고건 장로님은

가정과 교회,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신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인을 추려했다. 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고인을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바란다"며 유가족을 위로했다.

고건 장로는 국내 IT업계 1세대 석학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서울대학교 공대(응용물리학) 졸업하고 미국 버지니아주립대학교 전산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3년부터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국내 최초로 대학에 인터넷 교육망을 설치하는 등 국내 대학과 정부기관의 1세대 인터넷망 설치 사업을 주도했다. 전주대학교 12대 총장 역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명예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명예석좌교수를 지냈다. 2000년 12월 장로로 장립됐다. 온누리교회 전산실(IT전략위원회, 로그온사역팀), 가정사역본부 출산장려사역팀, FMnC 선교회(스마트선교단체) 등을 섬겼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김혜련 권사, 장녀 고은영, 차녀 고미영, 사위 김환일, 김상호가 있다. 장지는 용인공원묘지이다.

/ 정현주 기자

양재 권사 성가대 제2회 연주회

11월 9일 오후 7시 30분 양재 사랑홀

양재 온누리교회 권사 성가대가 제2회 연주회를 개최한다. 11월 9일 오후 7시 30분 양재 사랑홀에서 진행된다.

양재 권사 성가대 정기연주회에서는 '인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거룩한 성',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라' 등 찬양 10여 곡을 부를 예정이다.

양재 온누리교회 권사 성가대는 2011년 창립했다. 권사스쿨, 수요 여성예배 등 찬양이 꼭 필요한 곳을 찾아가 섬기고 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온누리교회 권사라면 누구든지 동역할 수 있다. 권사 성가대 연습은 매주 화요일 1시 10분 양재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문의: 02-570-7469

CGNTV '서빙고동 사진전' 개최

CGNTV가 지역 섬김 프로젝트 '서빙고동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 서빙고동 사진전은 서빙고동 거리 모습과 서빙고동에 살고 있는 어르신 6명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 녹사평 광장(11월 1일~11월 3일), 서빙고동 주민센터(11월 5일~11월 9일), 카페 마다가스카르(11월 21일~11월 25일), 서빙고 온누리교회(11월 27일~12월 7일)에서 순차적으로 작품을 전시한다.

서빙고동 사진전을 기획한 신미식 사진작가는 "지역과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과정은 정말 따뜻한 경험이었다"고 고백했고, 김경자 어르신은 "남편과의 좋은 추억을 남겨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다.

CGNTV는 매년 지역 섬김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올 겨울에는 온누리 아트비전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술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후쿠오카 기 · 도 · 제 · 목

- 11월 05일(월) 아크로스후쿠오카 1,800석이 가득 차고 넘치도록
- 11월 06일(화) 러브소나타에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 11월 07일(수) 프로그램을 통해 리더십들이 빛과 소금이 되도록
- 11월 08일(목) 이재훈, 리에코 목사님을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지켜주시길
- 11월 09일(금) 많은 교회들이 협력해서 후쿠오카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 11월 10일(토) 섬기는 한일 봉사자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 11월 11일(주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러브소나타가 되기를

■ 남양주 온누리교회 아웃리치 간증



/ 김병태 집사(남양주 온누리교회)

지난 10월 27일 남양주 온누리교회 A공동체 토핑다락방이 충청남도에 있는 안기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다락방 전체가 아웃리치에 함께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우리 다락방은 4개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 80~90명이 순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순별로 교회, 전방부대 등지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는데 순장님들께서 올해는 연합해서 함께 아웃리치를 가자고 제안했다.

순장님들은 아웃리치를 어디로 갈지 논의하면서 고심 끝에 결정한 장소가 바로 충청남도 안기교회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할 수 있었다. 우리는 순장님들을 중심으로 사역 파트를 나누었다. 아웃리치 출발 5일 전부터는 릴레이 기도를 했다. 아웃리치 하루 전 저녁에는 함께 모여 최종 점검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안기교회가 위치해 있는 곳은 지역 복음화율이 80%에 이르는 믿음의 땅이다. 하지만 교회에는 어르신만 있고 젊은 사람이나 어린이들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 다락방의 방문으로 안기교회에 젊은 성도들이 채워졌다. 우리의 방문이 어르신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확신

참된 섬김

할 수 없지만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다.

우리는 어르신들의 발을 씻겨드리고 마사지를 해드렸다. 몇몇 어르신들은 “태어나 처음으로 받아본 호사”라며 무척 고마워하셨다. 얼굴 마사지, 이발, 수지치료 등도 했다. 따뜻한 물을 계속 공급하시는 집사님, 분주하게 따뜻한 물과 씻은 물을 나르는 청년 모두가 하나 되었다. 또 전도 팸플리를 만들어서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나눠드렸다. 아웃리치에 참여한 성도님 모두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행한 것처럼 정성껏 어르신들을 섬겼다.

모든 봉사를 끝내고 저녁에는 집회를 열었다. 그 집회에 참여하면서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를 목상했다. 참된 섬김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섬기는 것임을 새삼 깨달았다. 우리는 촉박한 일정 가운데서도 안기교회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겼다. 우리의 부족한 손길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다. 앞으로도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안기교회를 섬길 계획이다.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 궁금했어요 OCC공동체 ‘일터심방사역’

일터에 하나님의 교회를!

직장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문화를 만들고 꿈꾸어 보는 일은 직장인이란 누구나 소망하는 일이지만, 오히려 현실은 더 살벌하고 좀 냉혹하기까지 한 분위기가 있는 곳이 바로 일터이다. OCC(Onnuri CEO Community) 공동체의 여러 사역 중 그 하나라 할 수 있는 ‘일터 심방사역’은 이런 세속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직장 사역이다. 바로 성경적 기업 경영을 추구하는 일터, 배려와 섬김의 문화를 실천하는 일터를 꿈꾸고 실천하는 일이다. 즉, 일터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크리스천 리더들의 비전의 선언이며 실천 사역이다. OCC공동체의 일터 심방사역은 공동체 성도들이 성도의 직장,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

여 일터를 위해 기도하고, 사업(직)장의 가치와 비전을 서로 나누며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일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신령과 진정으로 일터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일터 가운데 경험한다. 또한, 일터로 부르심을 받은 리더십과 함께 ‘일터 비전선언문’을 함께 낭독, 기념패를 증정하는 순서를 갖고 일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이어진다.

기업CEO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며 이런 일터 제사장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분이라 여겨진다면 OCC공동체와 함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문의: 강종도 총무

(OCC공동체 010-7737-8000)



OCC공동체는 지난 10월 19일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국회외교특임대사’로 일터에 부르심을 받은 한총회장로의 일터와 사무실을 방문했다.

■ 어린이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김재만 성도(동작공동체)

두 아들과 함께

작년에 어린이일대일제자양육이 처음으로 시작됐다. 나는 6학년이던 큰아들 성현이와 어린이일대일제자양육을 시작했다. 작은아들 유현이도 형이 하는 어린이일대일제자양육을 하고 싶어 했다. 형이 어린이일대일제자양육을 마치면 자신도 꼭 하겠다고 했다.

큰아들과 했던 어린이일대일제자양육 시간을 되돌아봤다. 큰아들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참으로 감사했다. 큰아들은 어린이일대일제자양육 덕분에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 유현이는 아직 어려서인지 신앙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했다. 하지만 어린이일대일제자양육을 무척 재밌어했다. 배너 만들기, 기도제목걸이, 죄 두루마리 만들기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나는 바쁜 회사일로 인해 유현이와 꾸준히 어린이일대일제자양육을 하지 못했다. 분기마다 마감에 쫓길 때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인지 어린이일대일제자양육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끌어주셨다. 12주

과정을 모두 마치고 수료할 수 있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유현이와의 대화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나누고 유현이에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반인반신”인 것 같다고 대답했다. 나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줬다. 유현이가 참으로 신기해하며 무엇인가를 깨달은 듯 보였다.

어린이일대일제자양육을 하면서 유현이의 기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며 맡기는 것으로 바뀌었다. 삶의 작은 부분도 하나님께 물었다. 처음에는 죄를 지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하던 유현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유현이의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안정감 있게 세워져 갔다.

어린이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서 두 아들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어린이일대일제자양육은 친밀한 시간이자 사랑의 시간이었다. 신앙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아이들의 믿음이 잘 자라기를 소망한다.

■ 한국어선교학교 수료 간증



/ 김규남 성도(S브릿지공동체)

‘훗날 저곳’에서 ‘오늘 이곳’으로!

2009년 박사과정을 밟기 위해 폴란드로 떠나기 전이었다. 현지 대학에서 한국어교원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들었다. 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유학길에 올랐다. 막상 현지에 도착했더니 한국어 교원이 이미 채워졌고 나는 한국어를 가르칠 기회가 없었다.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되어 오히려 잘됐다 싶었다. 그 후로는 그리스도를 목상하지 않는 삶과 함께 나의 유익만 구하며 일상을 보냈다. 그러다 깊은 고독감과 공허함에 빠져 방황하고 지쳐갔다.

하나님께서서는 바르샤바 한인교회 지체들의 격려를 통해 말씀을 보게 하셨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폴란드로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소명과 사명을 발견했다.

폴란드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다. 예배를 동시통역하면서 은사를 활용했다. 예배를 드린 후에는 우리말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 같은 시기 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바르샤바 한국문화원에서 교원으로 채용되었다. 현지인들에게 공

식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며 계속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전도가 선교로 이어지는 경험을 했다. 모교로 돌아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언젠가 폴란드로 다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한국어선교학교를 듣게 되었다. 이주민 선교사역을 소개한 첫 시간부터 성령님께서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주셨다. 나는 그동안 한국어 선교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멀리 가서 할 수 있는 사역이라고 여겨왔다. 하지만 주위에 한국어를 배우는 열방의 지체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훗날 저곳’에서 하는 선교에서 ‘오늘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선교로 바뀌었다. 그동안 나는 밖으로 나갈 생각만 했다. 물론 지금도 폴란드를 향한 꿈을 꾸고 있지만 그때까지 선교를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제는 폴란드 뿐만 아니라 유럽, 미주, 아시아, 러시아, 아프리카까지 바라보게 되었다. 한국이라는 좁은 땅에 선교의 대상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놀라운 은혜다. 한국어선교학교 강의를 통해 선교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 나는 오늘도 이곳에서 선교를 하고자 한다.

장로칼럼

겸손과 인내와 사랑으로



심길섭 장로
(강촌공동체)

2007년 러브소나타가 오키나와와 삿포로에서 처음 개최됐다. 나는 그 해 장로로 장립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장로로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고민했다.

러브소나타는 일본 복음화를 위한 사역이다. 사실 한국 교회가 일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은 과거 일본으로부터 큰 피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일본 교회를 사랑으로 품고 있다. 일본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온누리교회는 그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교회다.

나는 온누리교회에서 사도행전적 교회론과 목회철학, 사역론을 20여 년 동안 배웠다. 교회는 세상을 움직이는 열쇠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교회는 선교의 전진기지인 셈이다. 교회가 건강해야 세상이 건강할 수 있다.

나는 20여 년 동안 큐티사역과 일대일제자양육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반자를 양육하고 있다. 또한 온누리교회가 섬기고 있는 국내외 200여 교회가 주님의 기준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나는 사역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있다.

온누리교회의 비전인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를 찾고 계신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교회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마 28:18-20).

온누리교회는 전략적 선교 장학금(Torch Strategic Mission Scholaship)을 타국에서 온 30여 명의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나는 그 학생들을 글로벌 일대일제자양육과 큐티사역으로 섬기고 있다. 그들이 두란노서원, CGNTV, NGO 더멋진세상 등에서 여러 사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그들은 각 나라의 리더십이자 복음의 선각자들이기 때문이다. 귀한 선교의 자원들이다.

해외선교뿐만 아니라 국내 농어촌교회를 섬기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다. 농어촌선교팀에서는 농어촌 미자립교회에 재정을 지원해주거나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준다. 농어촌 교회를 잘 섬겨야 할 이유는 농어촌교회는 우리들의 고향 교회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을 잘 성장시켜 도시로 보낸 70~80대 어르신들이 농어촌교회를 지키고 있다. 우리는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재정적인 어려움, 목회자 부부의 정체성 회복, 자녀교육, 이단 문제, 다문화·이주민·결손가정, 이주민의 타종교 문제, 3~5%의 복음화율 등 농어촌교회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

두란노서원에서는 <생명의 삶>과 <빛과 소금>을 농어촌 교회 50여 곳에 보냈고, 각 공동체 다락방에서는 1다락방 1사역, 각 사역팀과 대학청년 공동체에서는 아웃리치로 농어촌 교회를 섬기고 있다.

나는 위에 언급한 사역들을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인식하고 순종했다. 장로로서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맡겨진 사역들을 겸손과 인내와 사랑으로 섬길 것이다.

권사칼럼

한 권의 책



김명옥 권사
(관악금천공동체)

나는 사단법인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이하 해동협)에서 일하고 있다. 이 사단법인 은 해외에 있는 교포들에게 우리말로 쓰인 책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해동협은 18년 전 브라질에 있는 동포로부터 한글로 된 책을 받아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작된 모임이다. 처음에는 제대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민간단체로 출범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사단법인으로 승격할 수 있었다.

18년 동안 해동협은 해외에 있는 750만 동포들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책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책을 전달했다. 군부대와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도서를 기증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전해준 책이 약 170만 권이나 된다.

우리가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사역은 개인과 단체의 도서기증으로 지속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기증된 도서 분류 및 박스 작업, 운송 작업 등에 헌신해 주셨다. 우리글과 교포들에 대한 사랑, 이 사역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책 보내주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다. 그 많은 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지속적으로 이어진 이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고백하고 싶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사역이 이어지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책을 받아본 교포들은 한인회 주관으로 독후감 대회를 연다. 한글도서관을 건립해

서 우리말 책 읽기 홍보도 한다. 그들의 활동을 들을 때마다 모국에서 보낸 한 권의 책이 해외에 있는 동포들의 성장과 변화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이 사역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 우리 문화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책 보내기 운동을 하면서 나 스스로를 문서선교 사역자, 우리문화 전도사역자라고 생각한다. 책 보내기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동포들이 우리말을 공부하고, 우리 문화에 흥미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해동협이 만들어지고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 함께 섬겨 줄 동역자를 구하는 것, 재정과 책을 기증받는 것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 나는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책 보내기 운동에 헌신할 것이다.

책 보내기 운동은 교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멋진 꿈을 꾸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성장한 아이들이 교포 사회를 희망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일을 18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그때도 ‘아멘’으로 기쁘게 응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열정을 다해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동료들과 종종 나누는 말이 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 뒤에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라는 말을 붙이고 싶다.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한글 책을 널리 보급하는 일에 헌신할 것이다.

신앙에세이



윤현규 전도사
(여호수아공동체)

몇 주 전 오랜만에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딸과 함께 서울 근교로 1박2일 여행을 다녀왔다. 평소 부모님과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아내가 부모님과 여행을 제안해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어머니께서도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니 무척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다. 어머니는 그동안 고생하면서 살아온 이야기와 간직하고 있던 추억들을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20살 되는 해 부모님을 모두 여의었다. 그때부터 5남매 장녀로서 어린 동생들

뒷바라지를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셋방을 전전하면서 넘기 어려운 인생의 파도를 건너야 했다. 또한 가난한 아버지를 만나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했다. 어떻게든 좋은 형편에서 살아보고자 아버지가 1980년대 중동 건설 노동자로 가셨을 때는 늘 마음 졸이며 3년 동안 아버지의 무사귀환을 기도하셨다. 지금도 그 기억이 난다. 밤마다 부엌에 나가서 아버지를 위해 혼자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하다. 당신의 인생을 들려주면서 갑자기 나에게 질문을 하셨다.

“현규야 내가 너 오십 살 될 때까지 살아야 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 나 네 아버지 둘 중 한 명은 살아 있어야 될 텐데...”

한참 즐겁게 말씀하시다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어머니는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42살 중년의 아들을 아직도 챙겨줘야 할 어린아이라고 여기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 자식

을 생각하려고 그 질문을 하셨던 것 같다.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을 무엇으로 얻어맞은 것처럼 아팠다. 그 이유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루에 한 번씩 안부전화를 드리고, 원할 때는 언제든지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큰 행복이다. 이 행복이 미래의 어느 시점부터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 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시 90:10).

모세는 사람의 일생과 시간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 정확하게 간파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 밖에 없음을

노래했다.

인생의 유한함은 사람의 입장에서서는 서글픈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주는 동시에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아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만든다.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게 만들고, 배우자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겠다고 마음먹게 만들고, 직장 동료들 금슬하게 여기고, 성도들을 가슴으로 품고자 노력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방법은 모세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랑만으로 인생을 채우는 일일 것이다. 물론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이 또한 가능할 줄 믿는다. 사랑만으로 인생을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항상 기도하라

진정한 선물은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담겨있고 그분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진정한 선물임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실 마음이 있고 꼭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기 전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더디 주시고 때로는 안 주십니다. 출처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일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모든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할 때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됩니다. 선물을 주시는 분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실족하고 타락합니까? 은사는 선물(Gift)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능력인양 착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구하는 믿음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두 번째 의미와 연결되어 발전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만 적용하면 율법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도울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이유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어느 친구가 여

행 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내놓을 음식이 없어서 다른 친구에게 빵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문제는 그때가 한밤중이어서 그 친구가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찾아간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친구라도 거절하고 싶지만 끈질기게 간청하면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 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눅 11:8).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친구와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끈질기게 요청하면 친구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빵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귀찮고 끈질기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보십시오. 친구는 자고 있는 상황이라서 불편하지만 끈질기게 요청을 해야 들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결코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간구를 불편해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무리한 상황이 없습니다. 자다 깨어 기도해도, 이른 새벽에 기도해도, 어느 때 어떤 문제든지 필요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쁜 삶이 없습니다. 일이 많은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지쳐서 신경 쓰지 못할 때가 없습니다. 항상 응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꺾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이 더욱 풍성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더욱 강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

상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에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바꿀 수 있다면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조금도 단절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려면 자주 더 기도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P.T. 포사이스라는 분이 쓴 〈영혼의 기도〉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오히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라. 좀 더 낮은 차원의 일을 놓고 유추해보자. 때로는 휴식이 가장 필요할 때 오히려 불안하고 들떠 차분히 누워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누워있어야 한다. 10분만 그렇게 누워있으면 누워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압박감이 차츰 사라지면서 잠에 빠진다. 잠에서 깨어날 때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만 기도하면 항상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기도하면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 잠이 드는 것처럼 어느 순간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필요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항상 열려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이 영적 생활의 승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추모하며



서경남 목사
(인천 온누리교회)

지난 10월 22일 세계적인 영성 신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유진 피터슨’(Eugene H. Peterson) 목사가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향년 86세였다.

그는 책 〈한 길 가는 순례자〉, 〈주와 함께 달려가리이다〉, 〈다

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성경 66권을 현대인들이 읽기 쉽도록 다시 쓴 〈메시지(The Message)〉 등 약 35권을 저술했다. 또한 그는 목회자들의 목회자였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1932년 미국 워싱턴 주 이스트 스탠우드에서 태어났고, 몬태나 주 켈리스펠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50년 시애틀 퍼시픽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뉴욕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존스홉킨스대학

교에서 샘여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58년 미국장로교단(PCUSA)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59년부터 뉴욕신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뉴욕시 화이트플레인스 장로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사역했다. 이 시기 유진 피터슨 목사는 목회자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을 깨달았다. 1962년 교수직을 사임하고 메릴랜드 주의 벨 에어라는 작은 마을에서 ‘그리스도 우리 왕 장로교회’를 시작하고 약 30년 동안 목사로 섬겼다. 1993년부터 2006년까지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리젠트 칼리지에서 영성 신학을 가르쳤다.

그는 ‘부활의 영성’을 강조해왔다.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부활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부활을 회복하는 삶이 바로 ‘영성의 형성’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말한 부활은 경의(Wonder), 충격(Astonishment), 놀라움(Surprise) 등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할 십자

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예수님의 부활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부활에는 관심이 없었고 현실적인 예수의 죽음에 관심이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이며 그들 앞에 나타나심으로써 그들이 깨닫고 경험했다. 현실에서 완전히 새로운 경외감에 휩싸이게 되었다.

피터슨 목사는 이를 ‘영성 형성’이라 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경이로움 안에서 형성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는 통제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공식이 영성을 빚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 부활의 경이를 경험함으로써 ‘영성이 형성된다’고 믿었다. 그래서 부활은 지저분한 역사인 현실에서 경이로운 창조주의 일상을 살아냄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깨워준다고 했다.

세상에서 자칫 부활의 경이를 잃고 쉴 틈 없이 성공과 정해진 목표만을 위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을 사는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다.

피터슨 목사는 2017년 세계적인 록그룹 ‘U2’의 리더싱어 보노와 대화하며 “나의 생은 얼마 안 남았지만 이 세상에서 성경을 전하고 우정을 나누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처럼 그는 최근까지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몬태나 주 호숫가의 통나무집에서 아내와 함께 지내며 말씀 연구와 묵상, 집필에 몰두하며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올바른 영적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그리고 10월 22일 월요일 아침 활짝 웃으며 “함께 가자(Let's Go)”라는 말을 남기고 한 길만 가는 순례를 완주했다. 자신의 회고록에 “무덤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고 쓴 글과 같이 그는 지금 부활을 살고 있다.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남아시아

예수 믿는 것은 기적

베란다에 이불 빨래를 며칠간 널어 두는 아래층 아주머니는 머리 염색도 자기 시간에 맞춰 여러 번 미루는 등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그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 집에 가서 파스타 만드는 방법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여러 사건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아랫집 일곱 식구와 학교 급우 세 명이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할 날이 오기를 기도한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끼 ‘밥파사역’을 시작했다. 복음팔찌를 만들어 아이들 14명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동안 잘 되지 않던 ‘싱할라어’가 막힘없이 나와 너무 놀랐는데 청년부 모임에서는 버벅거리느라 제대로 소통하지 못 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이 한국에서 실시할 ‘람카사역’을 미리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에서 온 전도팀들이 어린이 성경학교를 섬겨주었다. 이곳 아이들은 물풍선 놀이와 그림 그리기를 무척 신기해했다. 전도팀에서 맛있는 도시락과 콘을 준비했는데 이런 고급 도시락을 먹어본 적 없는 아이들은 가족들을 위해 음식을 남겨서 집에 가져가기도 했다.

이곳 아이들은 찢기고 베이고 유리조각에 패여 누런 고름이 나오는 상처투성이다. 토요일에 배를 드리기 전에 아이들의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 부모들이 먹고 살기 바빠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구급약품이 바다나 주변 선교사에게 약품을 얻어서 치료하기도 한다. 아이들의 상처를 치료해주다 보니 내 별명이 ‘닥터’가 되었고 아이들이 나를 보면 자랑하듯 상처를 내보인다.

나타사는 나의 싱할라어 선생님이다. 나타사는 대학 진학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영어, 싱할라어, 타밀어를 구사한다. 약기도 잘 다루고, 작사 작곡도 한다. 언어에 관심이 많고, 좋은 선교사가 되고 싶어 한다. 영국 유학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한동대학교 진학으로 방향을 정했다.

스리랑카는 불교와 폐농을 수 없다. 불교 없이는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승려들은 신같은 대우를 받는다. 그들에게 불교는 뱃속 깊이 박혀있는 종교 그 이상이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곳에서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 역할을 하고, 주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 아이다 선교사(스리랑카)

중동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1년 동안 공황장애와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 A국 생활을 정리했다. 회복되면 돌아와 사역하기 위해 사용할 물건과 고국에서 사용할 물건을 따로 포장했다. 30대 초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짐 가방을 챙기던 시절에는 짐 싸는 일이 쉽고 가벼웠다. 그런데 50대가 된 지금은 물건의 무게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무거워졌다.

지금 나는 치료를 위해서 시골에서 지내고 있다. 익숙하던 사역도 할 수 없고, 몸도 마음도 아팠다. 미세한 소리에도 심장이 벌렁거렸고, 이유도 모른 채 그저 불안했다. 지금은 살아내기 위해 꼭 조여진 마음의 긴장을 풀어내기 위한 과정에 있다.

사역지에서 비밀경찰의 추적을 받기도 하고, 무슬림에게 맞기도 하고, 저주를 들어야 했으며, 내가 버린 쓰레기봉투조차 그들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하루 24시간을 긴장 속에서 살았다. 숨 쉴 수조차 없던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행복했었다.

함께 울어주고, 기도하는 동료들이 있어서 좋았던 15년이 지나고 새로 옮긴 사역지에서 문제가 생겼다. 2년 전 정변과 지진, 교회모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무슬림의 방해로 오로지 혼자 견어야 했던 것이 공황장애와 트라우마로 나타난 것 같다. 떠나간 동료들을 원망했지만 그들의 행동보다 내가 교만했다. 공황장애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었고,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무슬림 친구들로부터 큰 위로를 받았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이웃이 누구인가. 나는 진정으로 누군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은 매일 1시간씩 외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 없음을 순간순간 깨닫고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외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속히 공황장애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A국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사용 받고 싶다.

/ 김선하 선교사(중동 A국)

유라시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출 바벨론의 길은 알지 못하는 길이다. 나의 경험과 이성을 벗어나는 길, 순간순간 그분께 물어야 하는 길, 대답조차도 나의 경험과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길임을 묵상한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직원이 친구의 농간으로 소송에 휘말렸다. 그 문제를 해결해주느라 자산의 일부를 팔아 지불했다. 그 일로 건축재정을 하면서 불안해지고 불평이 나왔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하는 사역은 돈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돈 아래 숨거나 나눔과 돌봄을 통한 섬김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주기를 소망한다.

주님은 낙담에 빠진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 무기력을 호소하는 우리를 날카로운 타자 기계처럼 만드실 뿐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도록 마음을 모으신다. 탐욕에 이끌려 합법적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실수를 인정하고 불의의 재물로 사람을

구하고, 돌보는 비즈니스의 동기를 되새기고자 한다. 한 영혼을 인도하고, 섬기고,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란다.

요즘은 학교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11월에 비우라고 해서 시작된 일이다. 당장 이전을 해야하는 데 25만불이 있다. 학교가 모아둔 재정으로는 땅 값이 200만 불이나 하는 시내 학교를 인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방법이 있다. 이 나라에는 아직도 공산주의 잔재가 남아 있어 학교가 국가 자산으로 잡혀있다. 그래서 교육부의 인가가 있으면 가능하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학교를 개방해서 한국인 뿐 아니라 현지 학생들도 수용할 계획이다. 어린 양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꼴을 먹이며,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 가운데 스며들기를 바라고 있다.

/ 주송걸, 주누림 선교사(중앙아시아 B국)

아프리카

이 땅의 예배자와 전도자

사역지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R지역은 두 나라의 행정적인 국경 마을이다. R지역 있는 강에는 사람과 차를 싣고 나르는 유일한 선박이 있어 사람들의 왕래와 교역이 활발하다. 그리고 수많은 마을이 있다.

나는 이곳에 예배자들을 세우는 꿈을 품고 강을 따라 두 나라 마을들을 방문하고 있다. 2년 전부터는 복음을 듣고 지속적으로 성경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차를 타고 들러 나가 매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오는 형제들도 있다. 비록 적은 수지만 두 나라와 R지역을 시작으로 더 많은 마을에 예배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지난봄부터 CRT센터에서 ‘태권도사역’을 시작했다. 성도들의 관심과 헌신으로

매트와 도복 등을 지원 받아 멋진 도장이 만들어졌다. 라디오 광도도 했다. 센터 외벽에 플랜카드도 설치했다.

학교사역을 위한 행정 절차를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드디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있는 허가증이 나올 것 같다. 그렇게만 된다면 문맹퇴치 언어학교와 여성들을 위한 단기간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

J모임방에서는 교회 자립을 위한 사역으로 양계장과 채소밭을 만들었다. 매주 금요일에는 기도모임과 소그룹 성경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양계장에서는 육계 1차 판매를 하고 소득 40%를 헌금하였다. 또 한 달에 한번 B지역을 다니며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기로 했다. 나는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땅의 예배자와 전도자로 살아갈 것을 믿는다.

/ 이예복, Aysata lee 선교사(아프리카 D국)

크리스마스 선교사 자녀 선물 보내기

1. 선물 준비 방법

- 1) 각 공동체 선교사역자가 주관하여 다락방(순)에서 준비합니다.
- 2) 주소확인: 선교사의 주소를 확인합니다(국내에 계신 선교사 포함).
※ 보안지역에 계시는 선교사에게는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로 소포비와 함께 선물을 보냅니다.
- 3) 편지쓰기: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도록 쓰고, 순원들이 돌아가며 적는 방법도 좋습니다.
※ 편지에는 반드시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 및 다락방장의 주소, 전화, 이메일을 기록해서 선교사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4) 선물 준비
① 선물은 우편요금과 배달과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② 실용적이고, 부피가 가볍고 깨지지 않는 것으로 적당한 가격 수준에서 준비해주십시오.
③ 우체국 기준에 맞게 소포 포장을 하시면 됩니다.
④ 작은 선물이라도 선교지에서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⑤ 해외 송금보다 현지 선교사님 가정 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성으로 준비하

여 주십시오.

- ⑥ 현지 도착 날짜를 고려하여 11월 중으로 발송해 주십시오.

2. 선물 준비 시 고려사항

- 1) 선교지의 기후를 고려합니다.
- 2) 자녀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준에 맞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① 자녀는 고3 및 12학년(2000년생 이후 출생자)까지 기재가 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각 공동체 선교사역자님들께 '선교사 자녀 선물 보내기 주소와 명단'을 메일로 발송).
②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선물(자녀 수와 연령 확인 필요): 학용품(크레파스, 연필, 공책, 스티커, 물감, 사인펜 등), 부피가 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장난감, 옷, 모자, 책(동화, 위인전, 교양만화, 학습지 등).
- 3) 보안지역에는 기독교 관련 음반, 서적, 비디오, 액세서리 등의 품목을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안지역 유의사항

- 1) 보안지역이란?
※공산권, 이슬람권 등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금하고 선교사로는 비자가 제한되는 지역(선교사의 사역과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보안지역으로 보낼 경우 기독교 관련 선물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편지 내용에도 기독교 관련 용어를 삼가시고, 사용할실 경우 보안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 ※보안용어와 보안지역의 자세한 내용은 공동체리더십 분들에게 메일로 안내드렸습니다.
- 2) 보안지역 안내
① 공산권
② 이슬람권
③ 힌두교권
④ 불교권
⑤ 각 공동체는 기록된 선교지 주소로 소포 포장을 하여 선물을 발송합니다.

보안지역(수신주소가 선교 단체로 되어 있음)의 경우에 소포 포장을 하여 소포비와 함께 선교 단체로 발송합니다(단 예수전도단(YWAM)은 직접 공동체에서 발송합니다).

있음)의 경우에 소포 포장을 하여 소포비와 함께 선교 단체로 발송합니다(단 예수전도단(YWAM)은 직접 공동체에서 발송합니다).

4. 문의

2000선교본부: 유정렬 간사(02-3215-3679), 2000m.comm@gmail.com

5. 우체국 요금

※자세한 사항(규격, 요금, 중량 등의 접수조건/통관/우편물 중 추적(행방조사) 등)은 우정 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나 우체국 대표 전화 1588-1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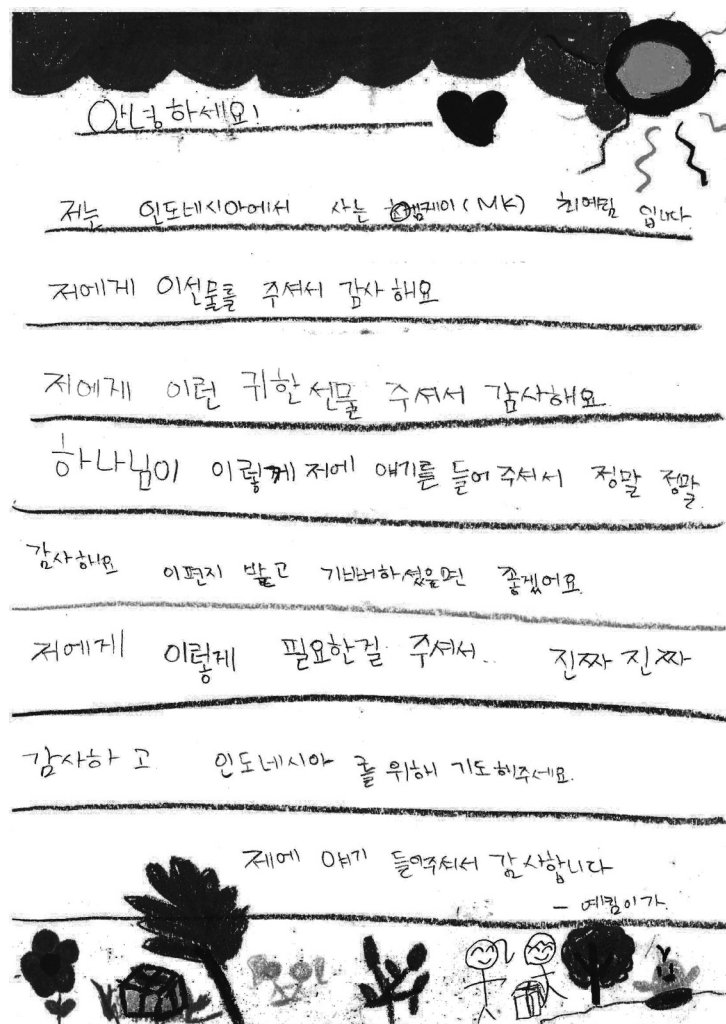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은 그분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기쁨이자 영광의 소식이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의 많은 나라에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을 모르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성탄을 진정으로 빛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은혜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타문화권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심과 격려다. 성탄의 기쁜 소식과 함께 선교지로 전해지는 성도님들의 정성어린 선물은 분명 선교사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위로가 될 것이다. 그 사랑에 힘입은 선교사님들과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 조경근 목사(2000선교본부)

6. 선교단체 연락처

단체	주소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3층	02-794-1063
비전빌리지 훈련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2층	031-331-8100
경배와 찬양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1길 54번지	02-796-9700
더멋진세상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4길 9, 5층 501호(라이온스빌딩)	02-2271-2246
바울 선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61 2층	063-254-8418
빌리온 선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58길 20 2F	02-879-1191
알타이 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논현로 132길 22, B01호	02-576-8503
중동 선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6(가락동, 한일빌딩) 선교제일교회 4층 401호	02-402-2062
중국복음선교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5번지	02-778-3626
BEE KOREA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2길 18	02-822-9480
Cornerstone (모퉁이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 우체국 사서함 8호	02-796-8846
FMnC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6 세종빌딩 4층	02-848-6251
GBT 선교회	경기도 안양시 안양판교로 20 신한대뷰오피스텔 406호	031-421-5324
GMF 선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길 46-25	02-2653-4270
GMP 개척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4길 25	02-337-7191
GMTC 선교훈련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8길 78	02-2649-3197
GO 선교회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549 2층	041-852-1040
GP 선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8길 17	02-443-0883
HOPE 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우체국 사서함 1052호	070-4006-5300
Inter-Cp 선교회	서울특별시 용산우체국 사서함 120호	070-8787-8800
InterServe 선교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코오롱트리플리스 A동 1206호	070-4352-6510
OM 선교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3(정자동) 현대빌딩	031-698-2372
OMF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9길 21 호안빌딩 2층	02-455-0261
SEED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9길 68 202호	02-521-0791
UPMA 선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 76 한국세계선교협의회 4층	02-815-4052
WEC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11길 7-17 승진빌딩 4층	02-529-4552
YWAM(예수전도단)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7나길 14	02-322-0563
온누리M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031-491-9650



CGNTV

2

0

1

8

서빙고동 사진展



· 공유 · 공감 · 공생

전시일정

11.01 ~ 11.03

녹사평 광장 (용산구청 앞)

11.21 ~ 11.25

카페 마다가스카르 (효창동주민센터 앞)

11.05 ~ 11.09

서빙고동주민센터

11.27 ~ 12.07

서빙고 온누리교회 아트비전 갤러리

CGNTV 지역섬김 프로젝트인 <2018 서빙고동 사진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지역의 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주최: CGNTV, 서빙고동주민센터 후원: 포토몬, 카페 마다가스카르, 온누리아트비전 협력: 용산구, 사진작가 신미식, 추연만, 남태영